

광화문서 빛난 광주정신...대동·평화의 촛불로 타올랐다

축제 같은 '100만 촛불집회'

광주·전남 2만여명 상경
질서 정연한 '광장의 정치'
오월 공동체 정신 구현

5월 광주정신이 서울 광화문을 가득 채웠다.

“국정에서 손 떼라”, “하야하라”, “퇴진하라”... 12일 서울 도심에 뒤덮은 '100만 촛불'이 청와대를 향했다. '100만 촛불'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재확인한 촛불이었다.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는 100만명의 인파가 운집했다. 군부독재를 종식시킨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된 연세대생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1987년 7월9일) 때 모였던 100만 인파 이후 29년 만에 최대. 이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퇴진', '하야'를 외쳤다.

거리엔 가족단위의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다. 유모차에 타거나 아빠의 무릎에 올라 탄 어린아이들도 많았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 나이 지긋한 이들까지 다양한 세대들이 모였다. 그렇게 한사람, 한사람이 모여 100만이란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냈다.

광주·전남에서는 2만여명이 서울 광화문에 집결했다. 광주지역 9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광주시민 1만여명은 이날 전세버스 207대, 승합차량 200여대에 나눠 타고 서울로 향했다. 전남도민 1만여명도 전세버스 350여대로 상경했다. 이날 KTX 열



12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대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대회가 열린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시청광장, 을지로 일대가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국민으로 가득차 100만명에 이르렀다.

차표는 매진됐고, 고속버스는 만원이었다. 전세버스를 구하지 못한 농민회 회원 1000여명은 발걸음이 묶이기도 했다.

이렇게 전국에서 모인 국민은 '광장의 정치'를 펼쳤다. 서울광장에서는 전국의 노동자가, 남대문 앞에서는 농민이, 대학로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청년들이, 탑골공원에서는 교복을 입은 고교생들이 시국

을 논했다. 방승인 김제동·김미화, 가수 이승환·정태춘·조PD·크라임 등도 공연하며 국민과 함께 했다.

이들은 현 정권의 무능과 국가문란, 헌정 파괴의 실태를 날방이 드러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겼다. 이는 '민중·평화·대동'으로 상징되는 '5월 광주정신'의 부활이었다. 부당한 권력에는 저항해야 한다는 광주의 저항정신이, 민주주의는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자주·민주정신이었다. 또 금남로에 이은 광화문에서 열린 연대와 공동체의 실현이었다.

서울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역사의 현장,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며 “전국의 노동자·농민, 평범한 시민과 어린이, 교복입은 중·고생이 한 목소리로 '하야'와 '퇴진'을 외쳤다. 광주의 정신이 광화문에 울려 퍼졌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

“국가폭력 책임 물어달라” 故 백남기씨 딸 재판서 호소

고(故)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씨 씨가 지난 11일 법원에 나와 “국가 폭력의 책임을 물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백씨 유족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가 백씨 사망의 원인이라며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올해 3월 총 2억4000여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원고 당사자로 나온 백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원인은 경찰이 쏜 물대포 때문”이라며 “물대포는 국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족 측은 직사 살수의 위험성을 지적한 SBS의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정부 측은 집회 당일 폭력 시위 양상이 담긴 동영상상을 각각 증거 자료로 제시했다.

원고 측은 “직사 살수 행위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고 과도한 조치로 생명을 빼앗았기에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피고는 이런 위헌적, 위법적인 행태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채임 업주 골프치다 '딱걸렸네'

○수억원의 임금 지급을 미루다가 뭉치돈이 입금되자 잠적한 '50대 약덕 사업주'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나오다가 잠복 수사에 나선 광주지방공용노동청 직원에 붙잡혀 철장했다.

○13일 광주지방공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 서구에 통신중계기 설치업체를 운영한 김모(59)씨는 지난 2월부터 '채임금 지급하겠다'는 공적 증서를 근로자에게 작성해 주는 등 총 52명의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 9억 5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선 뭉치돈이 들어오자 돌연 종적을 감췄다는 것.

○광주공용노동청은 김씨가 지난 6월 원청업체에서 4억원 규모의 공사대금을 받아 근로자에게 약속한 임금을 지급할 행편이 됐는데도 영통하게 식품회사를 인수하는데 투자했다고 판단, 출구금지하고 함께 범인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개월간 추적한 끝에 그를 검거.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촛불 계속 타오른다...16·19·26일 서울·광주 집회

향후 집회 일정

전남지역도 주 1회씩 열기로

“역사적인 100만의 촛불! 2016년 11월, 국민의 대항쟁이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하야, 국민이 이겁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100만인 촛불 시위를 성공적으로 치른 민중총궐기투쟁본부(투쟁본부)가 13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까지 더 많은 촛불을 밝히자고 국민에게 제안했다.

주말인 19일에도 100만의 촛불을 밝히고, 그때까지 대통령 퇴진 발표가 없으면 다시 한 번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서울로 집결하자고 호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들도 화답하는 모습으로서 한 번 타오른 촛불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3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민과 싸워 이긴 권력은 없습니다. 더 많은 촛불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립시다”라는 글을 올리고 “박근혜 퇴진 촛불을 더욱더 확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 행동 제안을 내놨다.

투쟁본부는 구체적으로 지난 12일 밤 함성과 열기를 시·군·구로 확대해 주말인 19일 밤에는 100곳 이상의 시·군·구에서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을 켜고, 대통령 퇴진 시진이 서울로 결집하자고 제안했다.

80여개 광주 시민단체로 꾸려진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당장 오는 수요일(16일)과 주말(19일) 오후 금남로와 충장로 일원에서 촛불 집회를 연다. 특히 전국 동

시다발 촛불집회가 예정된 19일엔 금남로 5·18 민주광장이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함성으로 뜨겁게 달궈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역도 주 1회씩 시군별로 촛불집회를 연다고 '박근혜 정권 퇴진 전남운동본부'는 밝혔다. 각 시·군 실정에 맞게 수요일이나 목요일 중 하루를 택해 농민회, 민주노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집회 일시를 잡으면 주당 최대 1만명이 촛불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단체는 전했다.

전남운동본부 관계자는 “전남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17개 내지 18개 시군에서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가 매주 개최된다”면서 “목포, 여수, 순천 1000명 이상 그리고 나주와 광양 등은 500명 내외로 모두 합치면 매주 전남에서만 1만 개의 촛불이 켜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암흑 세상 항의 SNS선 '전등끄기 운동'

촛불집회 못 간 시민들은

김유정·솔비 등 연예인도 참여

서울 도심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로 가득 찼던 12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을 매개로 가정에서는 '전등 끄기 운동'이 진행됐다. 직접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갈 수 없는 시민들이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일정시간 불을 끄는 방식으로 '촛불 항쟁'에 동참한 것이다.

전등 끄기 운동은 오후 7시부터 3분 동안 '우리 지금 암흑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을 항의하는 표시로 전개됐으며, 연예인들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으로 큰 인기를 얻은 아이유 배우 김유정은 자신의 인

스타그램에 “2016.11.12. 암흑의 세상. 7:00~7:03 항의의 전등 끄기. 집에서 함께 참여해주세요.”라고 글을 올리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가수 겸 예술가인 솔비도 자신이 직접 그린 촛불 그림과 함께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촛불처럼 우리의 마음들이 모여 다시금 밝고 찬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띄웠다.

이날 저녁 진행된 '항의의 전등 끄기' 운동은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날 오후 7시부터 3분간 어두운 현실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소등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h3>첨단 8층 상가빌딩 매매</h3> <p>북구 오룡동 (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p> <p>(본사건물, 연구실, 기숙사, 물류센터 적합 / 고속도로 진입 5분)</p> <p>토지 500평, 건물 904평 층수 : 총 8층 구분 : 1층(상가 - 120평) (2층 ~ 8층 룸 58개)</p> <p>★ 감정가 55억 매가 38억 (※대출 27억 / 보 6억, 월 3,000만)</p> <p>010-6670-9800 010-7384-7800</p>	<h3>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h3> <p>영광읍 신월리 → 광주에서 40분!!</p> <p>① 토 151평, 건 43평 ② 영광 터미널 5분(농가주택 최적함!!) ▶ 매가 8천500만</p> <p>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6층 (45평) 우수리 천변로 전망 좋음 보증금 1,000만, 월세 60만 (용 5천) ▶매가 1억 4천만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2층(11평) 온천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걸마면)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23평) 롯데마트와 상무나이트점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 (용 6백만) ▶매가 8천 500만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10평) 롯데마트와 상무나이트점 보증금 500만, 월 42만 (용 2천4백만) ▶매가 7천 500만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15평) 12층-전망 좋음,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보증금 200만, 월 25만(전세 2천5백만 가능) ▶매가 3천 5백만 서유 용산 청파 도시형 지하 (13평) 수영역대 1분! 보증금 600만 월 60만 ▶매가 1억6천 (용 5천) <p>010-7384-7800</p>	<h3>사무실/주거용 오피 임대</h3> <p>동구 수기동 사무실 임대 제일오피스텔 20층 중 6층</p> <p>45평 (약 4평 저층점지방 있음) 시설완비 / 시설비 약 4천만 등 / 주차임비 / 즉시 입주 가능</p> <p>▶ 보 2천 월 60만</p> <p>북구 중흥동 커피숍 임대(1층) 전대정문 2분 후문 2분 시설 완비 / 즉시 입주가능 ▶ 보 2천 월 70만</p> <p>첨단 사무실 임대 (1층~7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 1,000만 월 40만 (투룸형) (주차 1대 가능) (전세 7천 월 5만) (전용 12평, 분양평수 16평) ② 보 500만 월 35만 (투룸형) (주차 1대가능) (전세 6천 월 5만) (전용 9평, 분양평수 13평) <p>010-6670-9800</p>	<h3>법률 경매 (주) 대진경매</h3> <p>경매 추천 물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구 금남로 (3층 상가 건물) 토 17평 건 250평 금남로 47, 57역 사이 불거리 1층 (은행 2층~3층 (사무실) ▶감정가 2억 → 최저가 9억5천 북구 신안동 (주유소) 토 221평 건 266평 임동사거리 코너 위치 주유소 2층 주택 있음 ▶감정가 14억 → 최저가 9억8천 서구 금호동 (1층 식당) 토 68평 건 137평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 사거리 코너 식당 적격 추천 / 커피숍, 옷가게 추천 ▶감정가 13억 → 최저가 9억 서구 금호동 (상가주택) 토 56평 건 75평 1층 (식당) 2층 (주택) 대단위 아파트 정문 / 금호초 정문 ▶감정가 3억 → 최저가 3억 서구 쌍촌동 (토지) 농지 457평 온천역 3분 / 치평중 인근 도시지역 / 제 2층 일반 주거용 ▶감정가 12억7천 → 최저가 11억7천 <p>010-6670-9800</p>
--	--	---	--